

LF, 다쏘시스템의 패션산업 특화 솔루션 “마이 컬렉션” 도입

-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소싱 및 분석 단계 통합

서울, 2015년 7월 23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LF(대표 구본걸)가 다쏘시스템의 패션 산업특화 솔루션인 '마이 컬렉션(My Collection)'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LF는 자사 컬렉션의 기획, 디자인, 및 소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본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협업 및 분석 기능의 단일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LF는 지난 40년 이상 남성복, 여성복, 스포츠, 아웃도어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닥스(DAKS), 마에스트로(MAESTRO), 헤지스(Hazzys), 라푸마(Lafuma), TNGT를 비롯해 총 29개의 자체브랜드 및 라이선스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에 1,500개의 아웃렛을 보유하고 있다. LF는 ▲디자인, 품질 및 자원 강화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한 상품 기획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2017년까지 글로벌 톱 10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다쏘시스템 3D 익스피리언스(3DEXPERIENCE) 플랫폼 기반의 산업특화 솔루션인 '마이 컬렉션'은 개발·소싱·디자인의 통합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LF는 워크플로우와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컬렉션 수명 주기 전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내외부의 관계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실시간 글로벌 협업 및 소싱과 워크플로우 기반의 시준 기획이 가능하다. LF는 향상된 엔드 투 엔드(end-to-end) 가시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컬렉션을 기획 및 개발하고 전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LF의 차순영 경영혁신본부장은 “'마이 컬렉션'의 글로벌 협업 툴과 패션 산업에 특화된 소싱 프레임워크를 보고 도입을 결정했다”면서 “LF는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히 IT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잔 올리비에(Susan Olivier) 다쏘시스템 소비재 및 소매 산업 부사장은 “'마이 컬렉션'은 LF와 같은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첩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면서 “디자인에서 판매까지 아우르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자재 오류로 인한 비용과 데이터 검색 및 복제에 드는 시간이 최대 75%까지 줄어들 수 있다.

기업들은 그 시간에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컬렉션 라인을 개발하며 공급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샘플, 예기치 못한 비용, 생산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의 소비재 및 소매 산업 특화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3ds.com/industries/consumer-goods-retail/> 에서 확인 가능하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9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